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 9: 17)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일본선교의 매력은 일본인을 목회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을 목회한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매력 이면(裏面)에는 긴장과 갈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이지만, 두 나라의 국민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은 매우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만큼 한국인 선교사/목사는 일본인을 목회/선교할 때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전 칼빈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coram deo)에 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칼빈을 당신 앞에 세우셨습니다. 칼빈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고 그의 담대함은 예수님을 깊이 목상한 데 있었습니다. 칼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저 또한 일본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은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일(월~토)에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주일에는 예배시간을 통해 일본인들과 함께 저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일본인 신자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옛 계약이라는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어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마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전통/관습을 무너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성령충만한 그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츠모우데)



(부적)

일본인의 종교적 관습 또한 뿌리가 깊습니다. 일본인의 아침은 부츠단(仏壇)이나 카미타나(神棚)에서 소원을 비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아니 그들의 삶은 부츠단과 카미타나에 얽매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츠모우데(初詣, 정월의 첫 참배), 성묘(お墓参り)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사나 절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더우기 각종 부적(お守り)을 집에 붙이거나 몸이나 가방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일본인은 종교적인 관습이 두텁습니다. 또한 통신판매되는 신사/불교용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시대의 축복과 영광을 일본인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와 교회라는 새 부대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연공서열제도와 종신고용제도

1989년에 일본기업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당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가총액에 있어서 일본기업은 1위에서 5위까지를 싹쓸이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상위 20 기업 중 14개 기업과 세계 상위 50위 기업 중 32개 기업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 때 가장 많이 들던 말 중의 하나는 일본의 고용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특징은 두 가지로 연공서열제도와 종신고용제도를 말합니다.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선진 일본기업을 배울려고 정말 야단들이었습니다.

연공서열제이란 근속년수나 연령을 중요시하는 제도로써, 근무연수가 길고 연령이 많을수록 직급과 임금 등을 높게 평가하는 관습 또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공서열제도의 장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회사에로의 귀속의식이 높아지고 종업원이 정착하기가 쉽다.
둘째로 인사평가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지 않는다.
셋째로 인재의 양성계획을 세우기가 쉽다.

물론 연공서열제도의 단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편 종신고용제이란 기업이 정규고용 종업원을 정년까지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과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본 인재 육성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종신고용제도에도 단점과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대에 들어와서 일본기업의 쇠퇴와 몰락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중국에 밀려 세계 3위였던 일본은 가까운 장래에 독일과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까지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상위 50위 안에 일본기업은 토요다(33위, 참고로 삼성전자는 22위) 한 기업 밖에 없습니다. 1989년과 비교해 보면 일본기업의 몰락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이러한 변화는 다시 한번 일본의 고용제도의 특징을 진단하게 만듭니다. 일본기업은 지금 연공서열제도와 종신고용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토요다 자동차 회장은 종신고용의 붕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직희망자 405명을 대상으로 종신고용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신고용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4.3%가 아니오라고, 그리고 45.7%가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 때는 일본기업을 세계 정상에 서도록 만든 제도가 지금에 와서는 일본기업의 쇠퇴와 붕괴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자랑과 영광에 도취되었던 일본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보면서 낙담과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 일본은 새 시대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절호의 기회인 줄 모르겠습니다.

2. 우리 가족

11월에 접어들어 성탄절을 기다리게 만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두 딸과 우리 부부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은이는 이번 11월에 마지막 6 학기를 마치며 내년에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향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카츠타다이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10월 22일(주일) 전도집회를 통해 한 사람이 초청되어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카츠타다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크리스마스 기념예배와 축하순서 그리고 촛불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3.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4. 주은-마지막 6 학기와 내년의 논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향-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5.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6. 우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일본인들을 깊이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2023년 11월 1일(수)

일본 카츠타다이(勝田台)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